

인쇄하기



인쇄

[HOME](#) > [지역](#) > [진안](#)

진안초 오케스트라 하모니 눈길

국승호 | 승인 2018.05.30 19:51

호남예술제 관현악 경연 참가
지역사회서 재능기부도 활발



▲ 진안초등학교 꿈빛오케스트라단원들이 지난 29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관현악 경연에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.

진안초등학교(교장 송영임) 꿈빛오케스트라단이 학교 밖 관현악경연대회에 참가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.

꿈빛오케스트라단은 지난 29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관현악 경연에 참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했다.

이날 경연에서 50명가량으로 구성된 꿈빛오케스트라단은 '세빌리아의 이발사 서

곡, '브람스 심포니 1번 4악장' 등 평소 연습한 수준 높은 곡들을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.

경연대회에 참가한 김성유 학생은 "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떨렸다"며 "하지만 평소 꾸준히 연습해서인지 연주가 비교적 잘됐던 것 같다. 뿌듯하다.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송영임 교장은 "우리 꿈빛오케스트라단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재능기부 연주를 실시한다.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원들이 대견하다"고 말했다.

한편, 꿈빛오케스트라단은 전북도청이 주관하는 '전북의 별 육성 사업'으로 운영되며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한다.

저작권자 ©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국승호 기자

 인쇄